

환경부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2004. 5. 배포 <input type="checkbox"/> 사진 없음 <input type="checkbox"/> 총 8 쪽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이성한 과 장 박륜민 사무관	전화 (메일)	02-2110-7963 athena@me.go.kr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발효

(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同

Stockholm 협약

2004 5 17

2005

1

2004 5 , 151

59

- 2001년 5월 23일에 채택된 스톡홀름협약이 2004년 2월 17일 프랑스가 5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금년 5월 17일부터 발효된다
- 1992년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서부터 환경적으로 건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되어,
-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1994)과 화학물질 건전관리에 관한 기구간 프로그램(Interorganization Programme on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1995)을 설립하였고,

-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거래시 사전통보승인을 의무화하는 로테르담협약('98. 9)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 2월 UNEP 집행이사회는 POPs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개최하여 POPs 중 12가지 물질의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 스톡홀름협약의 주요 내용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을 저감하되 궁극적으로는 배출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mirex, heptachlor, toxaphene, DDT, HCB, PCBs(10종)는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 소각시설이나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dioxins, furans, HCB, PCBs 배출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이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P : Best environmental practices)을 적용하여야 하고,

BAT BEP

2005

1

- 협약발효 2년 이내에, 당사국은 협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이행계획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서명('01.10. 4)한 이후, 비준에 대비하여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 유기염소계 농약류(7종)와 산업용 화학물질(1종)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로 지정했고,

- 다이옥신 발생량 억제를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만들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BAT/BEP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 국가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 POPs 배출시설 관리 방안연구,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 정부는 금년 내에 비준을 추진하여 2005년 초에 개최될 제1차 당사국 총회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해서 POPs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다이옥신 등 부산물 POPs의 절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칭 “다이옥신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참고자료>

- 붙임 : 1. 협약의 주요 내용 1부.
 2. 협약대상물질에 대한 조치내용 1부.
 3. POPs로 인한 피해사례 1부.
 4. 비준 현황 1부.

협약의 주요 내용

□ 구성 및 목적

- 본문(전문 및 30개조)과 6개 부속서로 구성
-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의도적 생산·사용으로부터의 배출저감·근절 조치

- 대상물질 :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heptachlor, mirex, HCB, toxaphene, PCBs, DDT(10종)
- 조치사항 : 생산·사용과 수출입 금지 및 근절
- PCBs 함유 장비의 사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
- DDT의 생산·사용을 병충해 방제용으로만 제한
- 사전통보승인절차(PIC)에 따른 제한된 목적의 수출입 허용

□ 비의도적 생산으로부터의 배출저감·근절 조치

- 대상물질 : dioxins, furans, HCB, PCBs
 - 소각시설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
- 조치사항 : 배출량 저감 및 근절
- 행동계획(Action Plan)의 수립·이행
 - 배출현황 확인 및 분석
 - 배출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의 효율성 평가
 - 매 5년마다 이행성과의 검토 및 보고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BEP(Best environmental practices) 적용
 - BAT 적용을 장려 및 촉구
 - 확인된 배출원에 대해 BEP 사용을 증진
 - BAT/BEP의 세부지침은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

□ 재고와 폐기물로부터의 배출저감·근절 조치

- POPs 재고 및 폐기물의 확인
 - POPs 함유 제품의 재고 파악
 - POPs에 오염되어 사용되는 제품 및 폐기물 파악
- 환경친화적 관리 및 폐기
 -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취급·수집·운송·저장
 - POPs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파괴 또는 처리
 - 국제규칙·표준 및 지침에 따른 국가간 이동

□ 국가이행계획서 제출

- 협약발효 2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당사국총회에 제출
 -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주기로 검토 및 갱신
-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통합방안 수립에 노력

□ 협약 대상물질의 추가

- 절차 : 당사국 제안 ⇒ POPs심사위원회 검토 ⇒ 당사국총회 결정
- 심사기준
 - 잔류성, 생물축적성, 장거리이동성, 유해성을 고려

□ 기타 사항

- 정보교환
 - POPs의 저감 및 근절과 대체물질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 각 당사국은 정보교환을 위한 국가문의처 지정
- 연구·개발 및 감시
 - POPs, POPs 대체물질 및 POPs 후보물질에 관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연구·개발·감시 및 협력을 권장
- 보고
 - 협약이행을 위한 조치와 그 효과에 대해 당사국총회에 보고

협약대상물질에 대한 조치내용

협약대상물질	부속서 A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mirex, heptachlor, HCB, toxaphene, PCBs,
	부속서 B	DDT
	부속서 C	dioxins, furans, HCB, PCBs
화 학 물 질	국내 조치 내용	
Aldrin	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록취소(농약관리법)	
Chlordane	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록취소(농약관리법)	
Dieldrin	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록취소(농약관리법)	
Endrin	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록취소(농약관리법)	
Heptachlor	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록취소(농약관리법)	
HCB	국내 미도입 물질(규제 필요)	
Mirex	국내 미도입 물질(규제 필요)	
Toxaphene	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록취소(농약관리법)	
PCBs	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용금지(전기사업법)	
DDT	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록취소(농약관리법)	
PCDD/PCDF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폐기물관리법)	
HCB		
PCBs		

POPs로 인한 피해사례

□ 베트남전쟁 고엽제 피해

○ 사건개요

-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오렌지색, 흰색, 파란색, 보라색, 핑크색, 녹색이라는 색깔 코드가 붙은 6종의 고엽제 공중살포
- 이 중 오렌지색과 보라색은 2,3,7,8-TCDD 포함

○ 피해상황

- 고엽제에 접촉한 사람들에게 생식장애 증가
- 생식장애 발생률 조사결과, 선천기형(노출군 5.44/비노출군 0.43%), 사산(0.34/0.03%), 유산(16.67/3.63%), 출산이상(26.19/4.65%) 등 고엽제 노출자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 카네미 유증(油症) 사건

○ 사건개요

- 1968년 1800여명의 일본서부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피부·손톱·치주가 검게 변하고,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며, 손발이 저리는 병이 발생
- 환자들의 공통점은 카네미 회사가 제조한 미강유를 먹었다는 점이었고, 분석 결과 미강유가 누출된 PCDF와 Co-PCBs에 오염되었음이 밝혀짐

○ 피해상황

- 사건 이듬해, 피해자로부터 태어난 13명 중 2명은 사산하였고, 나머지 11명 중 10명은 전신피부 갈색증, 9명은 눈썹의 다량분비, 5명은 손톱과 치주 갈색증의 증상을 보임
- 사건 발생 23년 후 조사결과, 남성피해자의 발암 사망률이 1.55배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간장암 사망률은 3.36배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준 현황

□ 스톡홀름협약 비준국가('04년 5월 현재 59개국)

-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enin, Bolivia, Botswana, Canada, Chad, Cote d'Ivoire, Czech Republic, 북한, Denmark, Djibouti, Dominica, Egypt, Ethiopia, Fiji, Finland, France, Germany, Ghana, Iceland, Japan, Lebanon, Lesotho, Liberia, Luxembourg, Mali, Marshall Islands, Mexico, Mongolia, Myanmar, Nauru, Netherlands, Norway,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Republic of Moldova, Rwanda, Saint Lucia, Samoa, Senegal, Sierra Leon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weden, Switzerland, Trinidad and Tobago, Tuvalu, United Arab Emirates,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Viet Nam, Yemen

□ 비준국가 분석

- 주요 비준국
 -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집트,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체코 등
- 아시아 비준국
 - 일본, 북한, 몽골,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 주요 서명국(총 151개국 서명)
 -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